

전문 농업인 육성 '총력'

임실군,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실용교육·농업인대학 운영

임실군이 농업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21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전문 농업인을 육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농업기술센터는 연초부터 12개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기본반(비·고추), 전락작목반(4과정)을 필두로, 연간 100시간 이상의 이수 과정인 농업인대학(2과정)을 운영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우리 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농업인이 부자가 되어야 임실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화된 농업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농업에 실제 적용·실천하는 것이 부농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방법인 만큼 농업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해마다 추진하면서 전문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귀농인(5년 이내)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교육(10회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귀농 성공 우수농가와 1:1 맞춤형 멘토·멘티 교육 등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임실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전문 농업기술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도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리산의 대표적인 볼품 아생화인 청노루귀를 시작으로 너도바람꽃, 복수초가 첫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노루귀·너도바람꽃·복수초

지리산국립공원, 봄의 전령 3총사 개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리산의 대표적인 볼품 아생화인 청노루귀를 시작으로 너도바람꽃, 복수초가 첫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청노루귀를 시작으로 3월 10일 너도바람꽃, 복수초 등 이곳 지리산 전북권역에서는 아생화 개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아생생물보호단의 모니터링 결과 작년보다 10일 정도 늦게 개화가 시작되었으나 2020년과 비슷한 시기에 개화했다.

자원보전과 김재갑 과장은 "청노루귀, 너도바람꽃, 복수초를 시작으로 곧 있으면 지리산의 깃대종인 히어리와 최고의 탐방코스인 비래봉 철쭉 군락의 개화가 시작될 것"이며,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함께 해주길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병락 전 뉴욕부총영사, 임실군수 예비후보 등록

임실을 살릴 햇볕 한병락 전 뉴욕부총영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 등록지역 심사 통과 후 지난 20일 첫 번째로 임실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병락 예비후보는 임실군수 3수생으로서 절치부심하며 지난 10여 년간 구석구석을 누비며 한결같이 군민들과 함께 호흡해보면서 임실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왔다.

한병락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사즉생의 자세로 임한다면서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기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예산확보, 소득증대, 투명행정, 자치강화, 혁신성장을 천명하였다.

주요 핵심공약으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 혁신, 임실거주수당 신설, 목적호순환도로 조기완공, 과감한 기업유치,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애견산업육성 등을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 될 상황에서 유능한 군수만이 임실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도덕적 깨끗함, 풍부한 행정경험, 다양한 중앙인맥 및 철저한 준비 등을 갖춘 자신이 임실군정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라고 주장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21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열린 제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성원 의원(대표위원) 외 4명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남원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병숙 의원),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선 의원)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예산보다 461억원이 증가한 1조 88억 규모로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심사한다.

5분 발언에서 강성원 의원은 지방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 문화시설 인프라가 열악해 청소년의 성장과 경험 기회가 적은 편이며, 특히 현재 남원시 청소년 문화시설은 동충동과 쌍교동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시내 동부권과 지리산권은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평기 의원은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그린도시 남원"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해 3월 전북 최초로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탄

소중립을 선언했던 남원시도 적극적인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 검토와 신하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시 및 송전선로 선하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투자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한병숙 의원은 고속과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이전 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선 의원은 지역인구를 증가시켜 참여된 남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실내 야구연습장 조성 과 스포츠마케팅 활성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본격 의정 돌입

임실군의의회(의장 진남근)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2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관내 7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생활의회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진남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임실군의의회가 개원한 지 4년여가 되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민생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군민의 소리를 담아내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8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친환경 벼 재배 교육 성황리 마무리

순창군이 3월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2022년도 친환경 벼 재배생산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 농업인인 것을 감안해 비대면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지별 필수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구성하였으며 사전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작년에 큰 피해를 주었던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방제 등 친환경 벼 재배기술 및 육묘 관리 노하우 전수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농업현장에 자주 겪는 고충과 기술적 노하우 등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시, 원어민 화상 외국어 교육 실시

남원시는 4월 11일부터 남원시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화상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은 97%의 높은 이수율을 달성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며, 시는 작년 성과를 이어가자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약 7개월간 해당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은 18세 이상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2만원이다. 과목은 영어와 중국어 2개 과정으로 주 60분(주2회 또는 주3회)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남원시 원어민 화상외국어교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사항은 남원시 원어민 화상외국어교육 콜센터(1600-4734, 상담시간 10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병오 교육체육과장은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